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폴더 13번> 마음을 드높이	<가톨릭 성가 504번> 우리과 함께 주여	<폴더 24번> 목자

제 1독서 | 예제키엘 37,12-14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화답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 2독서 | 로마서 8,8-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복음 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 11,3-7. 17.20-28. 33-45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오늘의 복음

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17 예수님께서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33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복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복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복음 해설

『복음에서 우리는 인간의 믿음, 그리고 하느님과 하느님 사랑의 전능하심이 서로를 찾고 마침내 서로 조우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길과 같습니다. 곧, 인간의 믿음과 하느님 사랑의 전능하심이 서로 찾고 결국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마르타와 마리아의 절규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르짖는 우리의 절규에서 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

셨더라면!..." 하느님의 대답은 연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느님의 답변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믿음을 지녀라! 비록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눈물 흘리는 가운데 계속 믿음을 지녀라. 너희 마음에서 돌을 치워라! 하느님의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다시 가져가게 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문헌의 제1장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며, 교회를 '복합체'(8항)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복잡하다'는 뜻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이천 년의 역사를 지닌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적, 종교적 집단과도 다른 특징을 지녀 복합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틴어에서 '복합적(complexa)'이라는 말은 하나의 실체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이나 차원들이 질서 있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빛」은 교회가 **인간적인 차원과 신성한 차원이 분리되거나 혼란스럽게 섞이지 않은 채,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잘 짜인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인 '인간적 차원'은 우리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고단함을 함께 나누는 남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조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만으로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신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적인 차원**은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거나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 사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 공동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눈에 보이는 모임인 동시에 영적인 신비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 실재하면서도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하는 백성이기도 합니다(LG 8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771항 참조).

교회의 인간적인 차원과 신적인 차원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지 않고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역설(Paradox)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인간적이면서도 신적인 실재로서, 죄인인 인간을 맞아들여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교회의 이런 신비로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팔레스티나의 길 위

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그분의 눈빛, 손길, 목소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은 바로 그 환대하는 시선과 축복하시는 손길, 그리고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따라나선 제자들은 그 인간적인 모습 너머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와 얼굴, 몸짓과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현실에 비추어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체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처럼 힘겨워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구성원들과 그들의 제한된 지상적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과 구원의 활동이 드러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제도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구조는 우리 시대에 복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땅과 분리된 이상적이고 순수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역사 안에 구현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머무르시며, 그 구성원들의 작음과 연약함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느님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피조물의 나약함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활동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타인이라는 거룩한 땅 앞에 신을 벗는 법을 배우라"(169항)**고 권고하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친교와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인 집을 지어가도록 합니다.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불러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오직 사랑에만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이끌어 옵니다"(설교 354,6,6).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중 성체조배 (4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에 아란다 성당에서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2. 성당 공동체 가족 정보 조사 안내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친교를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전 앞에 있는 표를 가족 단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성함, 세례명, 생일, 축일, 소공동체 반

3. 부활대축일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 안내

부활대축일(4월 5일)을 앞두고 부활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 여러분께서는 정성껏 꾸민 **삶은 계란 3개 이상**을 꾸민 후에 작은 박스나 바구니에 담아 **부활대축일 당일 제대 앞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회 분들의 투표를 통해 1등부터 5등까지 소정의 상품이 드리도록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성주간(Holy Week) 전례 안내

<한인성당 미사>

- 주님 수난 성지주일: 3월 29일(주일), 3:00PM
- 성 목요일 주님만찬미사: 4월 2일(목), 7:00PM
-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5일(주일), 3:00PM

(부활대축일 후 교육관에서 식사나눔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밥, 김치, 고기, 음료'를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으신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오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컬 영어 미사>

* 성금요일 예식과 파스카 성야는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페이지 성당(St.Matthew)**에서 영어미사로 봉헌됩니다.

주소: 12 Chewings Street Page, ACT 2614

- 성금요일 수난예식 : 4월 3일(금), 3:00PM
- 파스카 성야 미사 : 4월 4일(토), 7:00PM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3월: 군비 감축과 평화를 위한 기도>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비 감축,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고, 세계 지도자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봉헌금 & 교무금 | (3월 14일 ~ 3월 20일)

봉헌금	\$ 110			
교무금	\$ 26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3월 공동체 공동 실천 사항 |

**다른 신자 분들 & 새로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